〔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한림학사 유연수는 정부인 사씨에게 자식을 얻지 못해, 교녀를 첩으로 들인다. 교녀는 유 한림과의 사이에 아들을 먼저 낳지만 이후 사 부인이 아들을 낳자 위협을 느낀다.

두(杜) 부인이 멀리 가매, 교녀가 등에 가시를 벗은 듯하여 동청에게 사 부인 해하기를 모의한다. 동청이 말한다.

"내 한 계교가 있으되, 두려하건댄 낭자가 듣지 아니할까 하여 못하노라."

교녀가 물으니 동청이 말한다.

"옛적 당나라 황제가 후궁 무 소의의 딸을 사랑하여 제 자식같이 하니, 무 소의 제 딸을 제가 눌러 죽이고, 황후를 모함하여 죽이려 하매, 황제 그 말을 곧이듣고 황후를 폐하고 무 소의로 황후를 봉하였으니, 이 계교를 행하면 낭자가 뜻을 이루리라."

교녀가 묻는다.

"자기 자식은 애중하면서, 남의 자식은 해코자 하는다?"

동청이,

"낭자의 신세가 위태하여 마치 범을 탄 것과 같으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정녕 후회하리라."

교녀가,

"이 계교는 차마 듣지 못하리니, 다른 좋은 모계를 획책하라."

동청이 대답하지 않고 납매더러 이르기를,

"낭자 사람됨이 잔약하여 이 계교를 행치 아니하면 우리 다 죽을 것이니, 네 틈을 타 행하라."

이후 납매 하수코자 하되 틈을 얻지 못하더니, 하루는 장주가 난간에서 자더라. 사방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은 없고, 사 부인의 몸종 춘방이 설매와 같이 풀싸움하며 난간 아래로 가거늘 멀리 간 후, 즉시 올라가 장주를 눌러 죽이고, 설매를 따라와 이르되,

"네 전일에 ⓐ 옥지환을 도적하였으니 부인과 노야가 아시면 죽을 것이니, 어느 때에 노야가 너를 잡아 물으시거든, 여차여차하게 대답하면 죄를 면하고, 많은 상을 교 낭자에게 얻으리라."

하니 설매 응낙하더라.

장주의 유모가 장주가 깨었는가 하여 와 보니 장주가 칠규로 피를 흘리고 죽었거늘 대성통곡하더라. 교녀가 넘어질 듯이 와 보고 하릴없는지라 크게 울며, 이것이 동청의 한 짓인 줄 아나, 흉모를 행코자 함인 줄 아므로 급히 한림께 알린다. 한림이 들어와 본즉, 차악한 경상(景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교녀가 통곡한다.

"이 일이 반드시 연전에 저주하던 사람의 짓이라 시비들을 문초하면 알리이다."

한림이 즉시 형구를 갖추고, 사 부인께 친신(親信)히 잔심부름하던 비복을 엄문하니, 장주 유모는

"소비가 공자를 안고 난간 위에서 놀다가 잠들기에 누이고 잠깐 밖에 나아갔삽더니 그 사이 변이 났사오니, 사죄할 뿐이요,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납매는,

"소비가 보오니 춘방과 설매가 난간 아래로 지나더이다."

하고 말한다. 춘방과 설매를 엄형 국문(鞫問)하니, 춘방은 독형(毒刑)을 입어, 유혈이 임리(淋漓)하나 애매함을 고하고 설매는 처음은 춘방의 말과 같이 하더니, 나중은 소리를 크게 하여 하는 말이,

"대형벌을 당하여 죽기에 이르렀는데, 어찌 직고치 아니하리까. 부인이 소비와 춘방에게 분부하사 '장주 공자를 죽이면 큰 상을 내리리라.' 하시기에 소비 등이 기회를 엿본 지 오래이나, 행치 못하였더니 오늘 지나다가 보온즉, 공자가 홀로 난간에서 자옵는데, 소비는 차마 하수치 못하옵고, 춘방이 올라가 눌러

죽였나이다.”

한림이 대로하여 춘방을 다시 엄형하니 춘방이 설매를 크게 꾸짖는다.

“무죄한 부인을 팔아 살기를 도모하니 견마라도 그 주인을 한 맘으로 섬기거늘 네 간사한 무리와 어울려 재물을 받고 주인을 해코자 하는다? 내 장(杖)을 맞아 죽을지언정 어찌 무죄한 부인을 해하리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부인의 원통한 누명을 씻어 주소서.”

하고 안색을 불변하고, 마침내 복초(服招)치 아니하고 장을 맞아 죽더라.

(중략)

이때 승상 엄숭이 도사의 잡술로 천자를 미혹하게 하는지라, 한림이 상소하여 간하였더라. 상이 기뻐 아니하사 비답(批答)지 아니하시고,

“다시 간소(諫疏)를 올리면 죽을 죄로 다스리리라.”

하시니 한림이 불안하여 사직하고 집에 있더라. 하루는 아는 도사가 왔거늘 한림이 몽사번잡(夢事煩雜)함을 이르고 도사를 데리고 안에 들어가니 도사 두루 살펴보며 한림 처소의 벽을 헤치고 ⓑ 목인(木人)을 무수히 찾아낸다. 한림이 매우 놀라매 도사가 웃으며 말한다.

“이는 오직 상공의 애정과 관심을 요구함이요, 살인모해(殺人謀害)하는 저주가 아니오니 상공은 방심하소서. 그러나 상공 면상에 흑기(黑氣) 어리어 집을 떠날 수액(數厄)이 있으니 조심하소서.”

한림이 칭사(稱謝)하고 도인이 돌아간 후 가만히 생각하니,

“연전에 저주한 일이 다 사씨가 꾸민 짓이라 하였더니, 이제 사씨 나간 지 오래고, 나 있는 방을 고친 지 여러 달 아니 되었거늘 또 이런 흉한 일이 있으니 분명 가내에 악인이 있도다. 이러한즉 사씨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하고 요사한 물건을 다 없이한 후 정신이 들어 옛날 총명이 돌아오더라. 전일을 상상하여 보매 뉘우치는 마음이 점점 더하고 꿈이 깬 듯한데, 두 부인이 성도에서 서간을 부쳐 왔더라. 한림이 개봉한즉, 사씨의 출화(黜禍)당함을 모르고 쓴 것이라, 말씀이 명쾌하고 거듭 사씨를 부탁하였더라.

한림이 두렵고 죄스러워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생각하매 자기가 꾀에 빠져 조강(糟糠)의 의(義)를 저버린 듯한지라, 심사가 편치 못하여 교녀와 정이 소원해지더라. 교녀가 크게 두려워 동청더러 사기(事機)를 이른다.

동청이,

“독약을 음식에 타 한림을 먹이라.”

교녀가,

“만일 먹지 아니하고 뱉아버려 일이 잘못되면 큰일이 날 것이니 다른 계교를 생각하라.”

동청이 모해하기를 생각하다가 하루는 서헌에 들어가니 마침 한림이 친구를 심방하러 나아갔더라. 동청이 서안을 상고하니 한림이 시세를 탄식하여 지은 글이 있는데, 승상 엄숭을 논박하되, 오국학민(誤國虐民)한다 하였더라. 동청이 좋아서 교녀더러 일렀다.

“이제 유연수 없이할 방도를 얻었으니 쾌하도다.”

교녀가,

“어찌 이름이뇨?”

“천자가 도사와 단약(丹藥)을 믿으시고, 엄 승상이 그 일을 힘쓰거늘, 이제 유 한림이 천자를 비방하고, 엄 승상을 폄하여 글을 지었으니, 이 글을 엄 승상께 드리면 승상이 노하여 천자께 아뢰어 필연 귀양을 면치 못하리니 어찌 묘하고 쾌하지 아니하리오.”

교녀가 좋아서,

“남의 손을 빌어 저를 없이하면 어찌 쾌한 일이 아니리오.”

- 김만중,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

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도사는 한림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② 납매는 교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주를 눌러 죽였다.
③ 유 한림은 천자를 미혹하는 승상을 비판하는 글을 지었다.
④ 춘방은 거짓 증언을 하는 설매를 꾸짖으며 죽음을 맞이했다.
⑤ 두 부인은 사 부인이 집에 없는 것을 모르고 한림에게 편지를 썼다.

2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

조선 중기에 이르러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처첩 간의 갈등, 장자 상속으로 인한 적서차별의 문제 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부장의 현명함이 중요했는데, 가부장이 어리석으면 가문의 혼란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또한 가부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가장이 죽거나 부재하게 되면 가문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다. 「사씨남정기」는 처첩 갈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위 확보를 위한 인간의 잔인성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으로써 조선 사회 가부장제로 인한 폐해를 보여 주고 있다.

① 설매가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 부인을 모함한 것은 처첩 간의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겠군.
② 동청이 엄 승상에게 유 한림의 글을 전하려는 계획은 가문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을 축출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겠군.
③ 동청이 유 한림에게 독약을 먹이자고 교녀에게 제안하는 것은 정쟁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문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동청이 납매에게 교녀의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간의 잔인성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⑤ 유 한림이 무고한 사 부인을 의심하여 나가게 한 것은 가장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문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2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와 ⓑ는 모두 사 부인을 살해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② ⓐ는 설매가, ⓑ는 사 부인이 과거에 행한 부정적 행위의 증거물이다.
③ ⓐ는 설매를 설득하기 위한, ⓑ는 한림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는 한림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는 한림을 모해하려는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⑤ ⓐ는 설매가 납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는 한림이 과거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